

단백질 고품질 신품종 콩 ‘대단’, 농가 수익 증대·콩 산업 활성화 기대

- 이승돈 농촌진흥청장, 전북 김제 ‘콩 자립형 융복합단지’ 사업 현장 방문
 - 고품질 콩기름·고단백 소재 동시 생산, 부가 가치 향상
 - “국산 콩 소비 정체 해소·자급률 제고 뒷받침”

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0월 28일 오후,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 조성된 신품종 고단백 콩 ‘대단’ 종자 생산단지와 ‘콩 자립형 융복합 단지’ 조성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.

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원료곡 안정 생산, 수확 후 종합 처리, 가공 제품 개발 및 유통 단계 등을 체계적으로 연결해 ‘생산-가공-제품화’로 이어지는 지역단위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2027년까지 추진한다.

총 11개 대상지 중 당진·함평, 괴산·사천 4개소는 사업을 완료했고, 파주·영주를 비롯한 7개소(충주·공주·김제·익산·울진)는 진행 중이다.

* (‘23~’24) 2개소 당진·함평 → (‘24~’25) 2개소 괴산·사천 → (‘25~’26) 2개소 파주·영주 → (‘26~’27) 5개소(충주, 공주, 김제, 익산, 울진)

2026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김제시는 현재 부량면 일대 약 5헥타르(ha)에서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고단백 콩 ‘대단’을 재배하고 있다. 내년에는 파종 면적을 약 100헥타르(ha)로 확대해 약 300톤을 생산할 계획이다.

또한, 원료의 유효 성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초임계 공법으로 최상급 콩기름과 식물성 고단백 분말 소재를 동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. 이렇게 생산된 최상급 콩기름과 식물성 고단백 분말 소재는 향후 프리미엄 식용유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이날 현장을 살핀 이 청장은 “최근 식물성 대체 단백질 수요가 커지면서 관련 시장도 확대되고 있지만, 핵심 단백질 소재는 국산 생산·공급이 부재한 상황”이라며 “고단백 신품종 콩 ‘대단’을 활용한 최상급 식용유와 고단백 분말 소재 동시 생산이 국산 콩 소비 정체를 해소하고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.”라고 밝혔다.

이와 함께 이 청장은 “콩 융복합 사업이 결실을 맺어 콩 생산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, 콩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가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전했다.

붙임. ‘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(전북 김제)’ 현장 방문 일정

담당 부서	농촌지원국 식량산업기술팀	책임자	팀 장	장재기 (063-238-1495)
		담당자	지도사	윤 송 (063-238-1500)
농촌진흥청에서 연구·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				

붙임

‘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(전북 김제)’ 현장 방문 일정

□ 개요

- 목적 : 콩 신품종 ‘대단’ 생산단지, 콩 융복합 사업장 현장 시찰
- 일시: 2026. 10. 28.(수) 15:30~17:40
- 장소: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(석산영농조합법인, 한마음영농조합법인)

□ 세부 일정

시 간	분	내 용	비 고
15:30~16:30	60	◦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사업장 시찰 * 전북 김제시 죽산면	석산영농조합법인 대표
16:30~16:40	10	이 동(죽산면 → 부량면) * 10km	
16:40~17:40	60	◦ 한마음영농조합 현장 실증 현장 시찰 * 전북 김제시 부량면	한마음영농법인 대표